

지역 소식통

부안군, 농어촌 빈집정비 비주거용까지 확대 추진

부안군은 도시경관 향상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을 비주거용까지 확대 추진한다.

군은 그동안 빈집정비 사업과 관련해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만 지원했으나 농어촌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해 비주거용(창고, 축사, 주택 부속동, 작업장, 근린생활시설 등)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정비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군은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총 9800만원(도비 50%, 군비 50%)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건물은 최대 350만원 이내, 일반 건물은 최대 250만원 이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정산해 지원할 계획이다.

철거를 원하는 빈집의 소유자는 오는 12일까지 빈집 소재 관한 읍면사무소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대지내 주택(빈집) 분체와 부속동 철거를 위해 중복해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이 제한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식품접객업소 8곳 위생 전문컨설팅사업 실시

정읍시가 음식점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나섰다.

관련해 시 보건소는 이달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8개소를 대상으로 위생 전문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

컨설팅을 통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주가 원하는 등급에 따라 자율적으로 평가를 신청하면,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신청업소는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소비자에게는 업소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28일 일반음식점 6개소, 휴게음식점 2개소를 대상으로 위생등급제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어 이달 중 위생등급제에 해당하는 64개 평가항목에 대해 현장 1:1 컨설팅을 지원해 항목별 진단과 해법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청년 실직자에 긴급 생계비

정읍시, 청년 긴급지원사업 추진... 월 50만원씩 3개월간 5인 미만 청년사업장 인건비 월 최대 200만원씩 4개월간

정읍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청년 실직자와 청년사업장을 위한 청년 긴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영난에 빠진 청년사업장에는 시간제 청년 일자리 인건비를 지원하고,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먼저, 청년대표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와 일자리를 잃은 시간제 근로 청년의 신규 고용 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15개소를 모집할 예정으로 1개소당 월 최대 200만원 이내 4개월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신청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또한 시간제와 단기 근로,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에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사회진입 활동 촉진을 위해 청년 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50명의 실직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방식으로 생생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오는 6. 14일까지 접수받아 자격요건 등을 심사한 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는 청년들의 경제적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청년대표다. 생계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고용노동부 구직활동지원금 및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자, 근무 연거나 휴직 중인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정읍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를 작성해 전북청년허브센터(www.job001.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나 팩스, 이메일 접수 등은 받지 않으며, 실직 전의 사업장 소재지와 관계없이 주민등록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TV조선, 조선일보에서 후원하는 제10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8년 연속 수상했다.

“고창군에서 제2의 인생 설계하세요”

‘귀농귀촌도시 부문’ 8년 연속 수상... 영농정착금 등 각종

고창군이 4일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TV조선, 조선일보에서 후원하는 제10회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귀농귀촌도시' 부문 8년 연속 수상했다.

고창군은 2007년 전북 최초로 귀농인 지원요체를 제정한 후 귀농인을 돕는 영농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꿈을 펼치고 싶은 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 2018년 1년간 1363세대 1748명이 고창으로 귀농귀촌해 정착했으며, 2007년 이후 2019년까지 군 자체조사를 포함하면 총 1만483세대 1만6400명이 고창군으로 귀농귀촌하여 인구증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고창은 풍부한 일조량과 깨끗한 물, 환경이 높은 황토 등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재배한 복분자, 수박, 멜론, 고추, 땅콩 그리고 풍천장어, 김, 바지락 등 전국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농특산물도 풍부해 영농 정착에도 유리하다. 군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을 비롯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소규모 귀농귀촌 기반조성사업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귀농을 돕고 있다. 이에 더해 새내기농업학교, 마을환영회, 귀농귀촌 멘토 동아리활동 지원 등 귀농귀촌인이 농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존주민과 융화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 예비 귀농귀촌인이 입주하여 창업교육과 기초영농교육을 이수하여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높은 부가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농수축산업 정책을 통해 잘 사는 고창이 되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귀농귀촌인들이 고창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우수'

520개 기관 대상... '2년 연속' 관리체계 등 전 영역 1등급

정읍시가 2019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가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상위 등급인 우수기관 등급평가를 받았고 4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2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 활용, 품질, 기타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 결과를 통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민의 수요를 반영해 데이터를 발굴·개방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우수한 평가를 인정받았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시는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첫해인 2018년도 높은 점수를 받으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 평가에서도 관리체계에서 만점을 받는 등 모든 영역에서 1등급을 받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평균

(62.85점)보다 높은 수준인 87.35점을 기록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유진섭 시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신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고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창의적 데이터 산업 창출자원을 통해 데이터 행정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정읍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130여 개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시는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신규 공공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기센터, 생애 그늘쉼터 만든다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등 2곳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성선)는 2023년 새만금 세계잡버리대회장에 방문한 세계인에게 쾌적한 그늘 쉼터 제공을 위한 덩굴식물 이용 생애 그늘쉼터 조성 시범사업을 줄포만 갯벌생태공원과 상서면 새기술실증시험농장 2개소에서 추진하고 있다.

2023 세계잡버리가 개최되는 부안지역에 적용이 우수한 덩굴식물을 선별하고 군민에게는 폭염에 따른 무더위

그늘 쉼터를, 어린이들에게는 자연생태학습장을 제공하기 위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부안군은 새만금과 기후조건이 유사하고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주요관광지로 연중 방문하는 관광객과 더위를 피해 야간 산책하는 군민들이 많아 사업 효과가 높을 것이며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농장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농업인에게 그늘쉼터와 힐링의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성된 생애 그늘터널에는 약화박



등 알록달록 관상용 호박과 꼬마조롱박 등 박과식물과 백합과, 작두콩 제비콩 등 13종의 덩굴식물이 심겨져 있어 더운 여름 시원함과 풍요로움, 농촌의 정겨움을 만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정읍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도서관 상주 작가 지원사업'은 공공도서관에 작가가 상주하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운영되며, 국비 1,7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상주 작가로 이리야 작가와 함께 성인 및 청소년 어린이 대상별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리야 작가는 2012년 '어린이와 문학으로 등단' '돌도 보이

선생님', '가짜 정우 진짜 정우', 2018년 정읍시 한 권의 책 비하인드 비하인드를 출간했다. 또한 2019년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상주 작가로 활동하며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 동화문집과 정읍 설화 그림책 작품을 완성한 바 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2019년 도서관 상주 작가 사업 결과 문집과 그림책의 출판기념회를 20일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 상주 작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글쓰기 등 창작활동과 문학 향유를 도와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